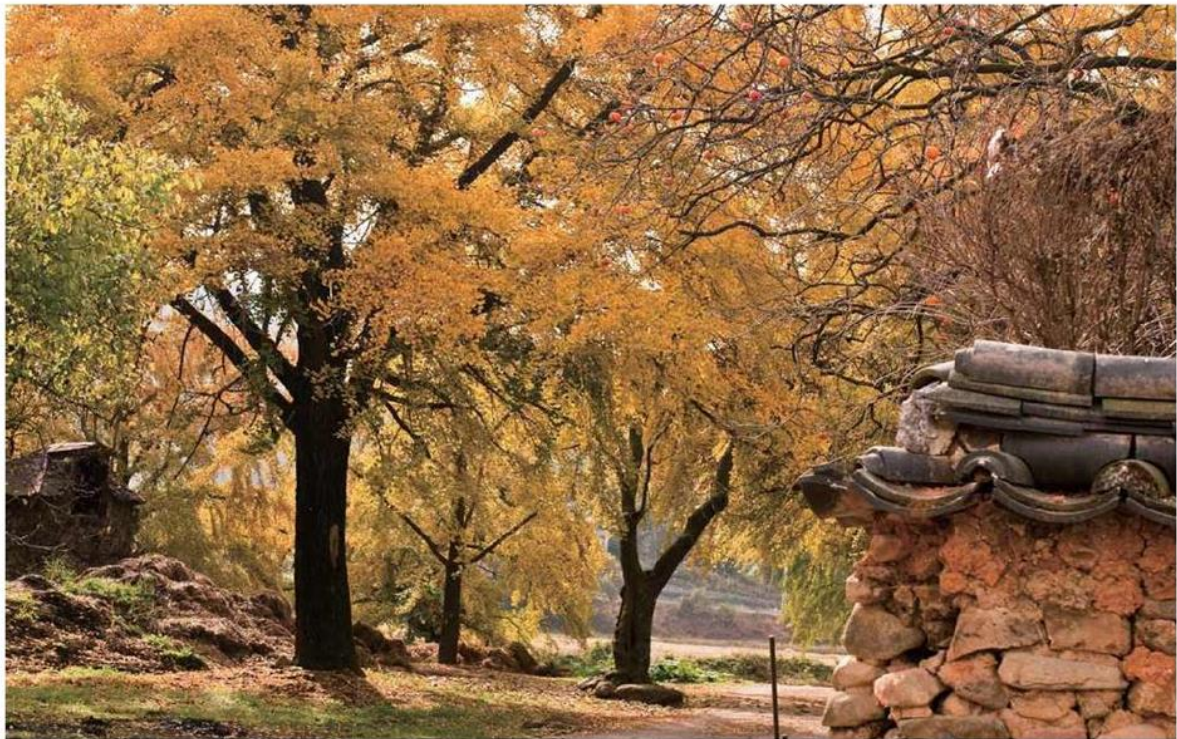


2014. 11

충청남도의회소식 제63호
제274회 정례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
의회소식**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편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필라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 서 정 주





보령 청라은행마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소식

- 02 개 회 사
- 04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
- 08 5분발언
- 1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1 상임위원회
- 35 주요안건처리현황
- 38 의원논단
- 40 포토의정
- 46 의회사무처 소식

- 발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편집 | 총무담당관실 기획홍보팀
- 전화 | 041)635-5102
- 팩스 | 041)635-5009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홈페이지 | <http://www.chungcheongnam.go.kr>
- 디자인 · 제작 | (주)디자인시티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74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비회기중에도 민생현장에서 지역현안을 살피며 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제10대 충남도의회 첫 의정연찬회에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며, 도민과 함께 하는 충남도의회가 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10만 도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충남도의회가 되기 위해 함께 더욱 노력하자고 제안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민선 6기 출범이후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등에서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결과 국회 제출 정부예산안에 많은 부분 반영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복한 도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도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열흘간 제60회 백제문화제가 열립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축제이니 만큼,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하길 당부 드리며, 수많은 행사와 축제 속에 도민의 안전을 우선 챙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해의 남은 3개월여 간은 그동안의 많은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도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파를 초월하여 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뜻을 모으고 합심해 나가자고 당부 말씀 올립니다.

농가에서는 추수를 앞둔 일 년 중 가장 보람된 시기입니다. 가장 바쁜 농번기이니 만큼 농가의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많은 행사와 함께 들뜬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학입시 수험생들에게는 수험능력시험일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긴장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수험생들이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제274회 정례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이며,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9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있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산 심사에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잘못 집행된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에서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정례회도 21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만을 생각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다가옴을 시샘하듯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과 210만 충남도민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9. 25.

충청남도의회회의장 김 기 영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개회

도민 삶과 밀접한 도정 질의와 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19일간 제274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도정 질문, 조례안 심사, 5분 발언, 현장 방문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현안이 논의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과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였으며,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충청남도 발전에 관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외연도항, 장고도항, 녹도항 등 개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었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산림환경연구소 등을 방문해 의견수렴 및 종사자를 격려했다.

또한 올해 도의회 사무처와 충청남도,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75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기로 했고,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천안고교 평준화)은 찬성 1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김기영 의장은 “최근 도민들의 민심을 요약하면 살림살이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1 본회의

- 0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승 위원장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보고
-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부위원장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결과 보고
- 04 의회운영위원회 조길행 위원장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 05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 06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 07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 08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 09 김용필 의원 쌀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보고





5분발언



김원태 의원
(비례)



교원 순환전보 평의 원칙 촉구

논산, 계룡, 공주, 천안지역 초등학교원 10년 순환 전보 구역에 포함되어 지역 발전과 교원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20년 전 도교육청이 교원들의 원활한 인사를 명분으로 인사규정을 변경되어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다. 이런 전보 구역 설정된 곳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어느 지역으로 방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다 보니 가정이 불안정하게 되고, 자녀 문제 등으로 정착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불안 속에서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하루 속히 경합지역에 대한 구역 순환전보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젊고 유능한 교원들이 마음 놓고 어떤 지역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교원순환 전보 평등의 원칙으로 개선될 것을 촉구한다.

김용필 의원
(예산1)



나라사랑 운동 선양 연계화 사업 촉구

충남지역 올바른 민족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나라사랑 정신이 날로 쇠퇴해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역사를 바로 보고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며 농민혁명 등 큰 틀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내재한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예로 신례원 지역은 근현대사에서 큰 자취를 남겼던 동학 농민혁명, 김구 선생을 모신 일연 신현상 선생 등 민족운동의 산실지역으로 8·15 해방에 관한 기념식을 자비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충청남도과 각 지자체가 앞장서 지역의 역사를 되살릴 근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이 시대 우리에게 밝혀줄 소중한 역사의 가르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나라사랑 운동을 선양하는 도의 전진적인 정책과 지원을 촉구한다.

백낙구 의원
(보령2)



감사위원장 공석으로 감사 체계 대책 필요

감사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감사 체계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다. 두 달 가까이 감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탓인데, 여전히 준비 미흡으로 각종 감사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2011년 위원회 출범 이후 청렴도 평가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는 청렴도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청렴대책 추진,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강화, 도민참여형 감사제도 운영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감사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러한 감사 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감사위원장 공모 절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안이었으며 아직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하루 빨리 감사위원장을 임명해 공정·투명한 선진 감사행정이 이뤄지기를 기대 한다.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4. 9. 25)

홍성현 의원
(천안1)



아동양육시설 심리치료사 권역별 배치 촉구

충청남도내 각종 심리 상담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초·중·고교 상담 체계에 이어 아동 상담까지 인력난으로 제대로 된 상담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부모의 이혼, 가정경제 파탄, 아동학대 등이 사회적 이슈지만, 도내 아동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실제 도내 13개 양육시설 중 부여군 S 보육원에만 심리치료사 1명만 배치되어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까지 심리치료를 배치하도록 아동보호법이 제정됐지만,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심리치료사 배치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위해 심리치료사가 권역별 추가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청남도가 앞장서 아동 상담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공휘 의원
(천안8)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문화공간 활용 제안

애물단지로 전락한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으나,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수년째 흐지부지 생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천안시 성거읍에 1999년 농축산물 유통 혁신을 내세워 국비 278억원 등 모두 519억원을 투입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설립 4년 만인 2003년 누적 적자가 498억원에 달해 자본금이 전액 잠식, 이듬해 관리공사로 전환했지만, 뾰족한 묘수 없이 안전행정부(당시 행안부)로부터 해산과 청산 명령을 받았다. 이곳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직업체험관, 예술 무대 조성 등이 가능하므로 충청남도는 TF팀을 구성해 하루빨리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유병국 의원
(천안3)



SOC사업 추진 전략과 향후 대응 방안 촉구

충청남도의 치밀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사회간접자본) 유치 경쟁이 결국 도민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변 지역을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용역 등을 수행해 사업 유치에 발로 뛰고 있으나 충청남도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일례로 천안 청수전철역은 새로 조성된 청수행정타운 및 용곡·쌍용동 등 인근 아파트 주민 약 20만명 즉 천안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도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는 모두 누락되어 있다. 충청남도는 전체의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한 사업에 대한 치밀하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 인력을 보강해 누락된 사업과 필요한 국가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5분발언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4. 10. 13)

이기철 의원
(아산1)명확한 계획으로 SOC
확충등국비 확보노력 필요

충청남도의 국비 확보 노력이 타 지자체보다 뒤처지고 있다. 자료 조사에 따르면 대전은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이었던 2조2천억원보다 6.3% 증가한 2조3천388억원, 충북은 목표액 4조 2천억원보다 2.2% 늘어난 4조 2천905억원을 잠정 확보하였는데, 충남은 목표액 4조700억원 대비 410억원(1%)이 늘어난 4조1천11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보면 목표액은 달성했으나, 세수나 인구를 볼 때 확보 규모는 대전, 충북보다 뒤처진 결과를 보인다. 충청남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 전방위로 뛰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돼야 하며 내포신도시 이전 등으로 국비확보가 더 충원돼야 할 것으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한다.

맹정호 의원
(서산1)가로림만 갈등해결 위한
프로젝트 필요

가로림만조력발전 건립을 놓고 서산·태안 지역민의 간 썩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가칭 '가로림만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가로림만조력발전(주)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으며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가로림만의 생태환경, 주민생계, 지역공동체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문제는 조력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은 찬반으로 엇갈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어 도가 앞장서 하루 빨리 이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 앞으로 조력발전을 찬성한 지역민의 의견 역시 존중해야 하며 이들이 걱정했던 어촌인구 노령화, 어장의 황폐화, 관광어촌의 기대감 등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하고 있는 가로림만이 주민들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신재원 의원
(보령1)

보령신항 복합항 개발 촉구

보령신항을 물류 수송과 관광이 어우러진 중부권 다기능 복합항으로 개발해야 한다.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로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1997년 7월 정부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거 신항만 지정을 고시하고 물동량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기능 복합항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노력이 절실하다. 또 안면도~원산도 간 연륙교 개설과 원산도~대천 항까지의 해저터널 완공 시 새로운 관광단지로 부상 받을 수 있으며 보령신항이 크루즈와 무역이 가능한 융복합 항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 역할이 막중하므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4. 9. 29)

Q1 교육감의 공약사항 중 '혁신학교'의 개념과 운영 방식, 타 시·도의 '혁신학교'와의 차이점은?

A1 혁신학교는 소통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형성하여 교육과정의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여 농어촌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음, 혁신학교 운영방식은 매년 25개교 선정과 교당 3,000~4,000만원 지원 예정으로 혁신학교 평가는 매년 학교별 자체 평가와 함께 혁신학교 컨설팅 실시, 2년차 중간 평가 실시하여 재지정 여부 심사, 4년차에는 종합 평가 실시 할 것임, 타 시·도 혁신학교와의 차이점은 충·절·의 등 충남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추진하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 추진으로 도시 근교형과 도시형도 함께 추진해 간다는 특징과 혁신학교의 과제가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에 대한 개혁 진행 특징이 있음.

Q2 9월 1일자 인사 발령에서 평교사 2명을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으로 승진발령 했는데, 법적인 근거와 그 이유는?

A2 장학관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명할 수 있으며, 비서실장은 시·도교육청의 행정조직,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임명 가능하며 임용된 장학관은 변화·관리 능력을 발휘해서 현장교육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임.

도교육청 장학관
임명 부적절 지적



김홍열 의원(청양)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촉구



김종문 의원(천안4)

Q1 학교 앞 영세문구점을 살리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 합리적인 대안 계획은?

A1 영세문구점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학교 인근 문구점을 활용하여 구매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앞 문구점들도 학교장터(S2B)에 가입 후 학교 전자계약 구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영세문구점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계획임.

Q2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제도 유지를 위한 예산 및 처우개선 방안은?

A2 스포츠강사는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충남교육청은 2017년까지 충남 전체 초등학교에 100% 배치할 예정임. 다만 이들의 처우나 확대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대신 충남교육청은 초등학생의 보다 내실 있는 체육수업을 위해 체육교과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임.

Q3 교육감 '혁신학교'와 도지사 '행복 공감학교'를 통합 · 운영 방안은?

A3 2010년 도지사 제안으로 2011년부터 도와 교육청이 협력 운영해오고 있는 행복공감학교는 농촌 소규모 학교를 선정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향후 혁신학교를 선정함에 있어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행복공감학교 중 혁신학교로 지정 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우선 지정 할 계획으로 기존에 도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행복공감학교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보다 진전된 학교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저출산·고령화 및 노인자살률 낮추는 데 노력 필요



정정희 의원(비례)

Q1 자녀 출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에 대한 견해는?

A1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하반기 자체사업으로 출산인식개선 교육 등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출산장려금은 시·군별로 자체 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음.

Q2 노인 자살 대책관련,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대책은?

A2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시군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집중 관리 중이며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은 도내 응급실을 갖춘 9개 의료기관에서 응급조치 및 주기적 상담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외로움 해소를 위한 각종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중 임. 또한 치매 관리사업은 만 60세 이상 노인은 조기검진 의무화로 예방

관리하고 고위험군 검진 비용 지원, 투약비 및 기저귀 등 치매용품 지원과 6개 시군에 주 간보호소를 운영하여 치매노인 보호와 인지재활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위치추적기를 보급하여 실종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Q3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어린이복지관 등 활성화 방안은?

A3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문화공간과 청소년 체험활동 중심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철저한 사전 신고와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 지도·점검해 나가겠음.

Q1 사회 취약계층인 한센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A1 한센인 정착촌을 새로 건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정착촌의 시설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인상안을 건의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운영비 수준을 현실화 하겠음.

Q2 고령화 시대에 노인 상담심리 치료를 위한 대책은?

A2 노인 자살율 감소를 위한 상담 업무는 시·군 정신 보건센터의 전문요원(4명)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논산시는 금년 3월부터 자체사업으로 1명의 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노인 상담 사업을 실시 중이며 앞으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Q3 논산·계룡, 예산, 서천의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증축 필요?

A3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세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예산교육지원청은 현재 활용에 어려움은 없고, 서천교육지원청은 이전 신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서천군과 협의를 통해 군 청사 이전 예정지 내에 교육지원청 부지를 확보할 경우 이전 신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시설 노후화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교육지원청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Q4 교육청의 독도교육 강화 위한 학교 수업 방안은?

A4 '독도사랑캠프'를 열어 독도콘서트, 광고 만들기 등 다양한 독도사랑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생들이 직접 독도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한센인에 대한
처우 대책 촉구



송덕빈 의원(논산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 촉구



맹정호 의원(서산1)

유보통합추진에 대한 대응과 계획 요구



이공희 의원(천안8)

Q1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도의 대책은?

A1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물다양성 제고차원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하지만 농민들이 가꾼 농작물이 훼손된 것을 보면 안타까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에서는 2009년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보상금 지원하고, 야생동물 퇴치사업으로 2006년부터 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예방시설 설치하였음.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수확기뿐만 아니라 파종 및 생육 기에도 확대 운영하겠음.

Q1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추진에 대한 도의 현재까지 대응과 향후 계획은?

A1 도는 유보통합 추진 동향을 지속 관리,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안이 제시될 경우, 도 차원의 역할을 적극 강구하겠음.

Q2 유보통합 추진과정에 있어 아이, 부모, 교사 등에 대한 도의 대응 계획은?

A2 학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과 양질의 교사 확보와 서비스 제공 및 시설 및 교사간 격차 해소하고 다양성 유지 노력하겠음.

Q3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추진에 대한 도교육청의 현재까지 대응과 향후 계획은?

A3 도교육청 대응으로는 누리과정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와 유아학비 지원 및 충남유아교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 유아대상으로 시설을 개방하고 있고 교사 자격 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 사항이 없기에 향후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준비하겠음.

Q4 유보통합 추진과정에 있어 아이, 부모, 교사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계획은?

A4 유아학비 지원 통합카드, 정보공시 내용 확대 등 정부 유보통합 추진 단계 및

취 운영할 계획이며,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양 기관의 차이로 인해 학부모가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에 대한 추진의지는?

A1 민선 6기 공약에도 안면도 개발이 포함되어 있듯이 도의 안면도관광지 개발 의지는 확고함. 본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우선협상대상자의 투자지지에 대한 재확인 과정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 제시를 통한 이해 및 설득이 필요한 과정으로 추진일 정합의서에 따른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성공적인 명품관광지 조기착공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겠습니다.

Q2 농어촌지역 학교 방과 후 학습과 관련하여 교과 중심으로 방과 후 학습 실시 방안과 교통편 시설 부족한 도내 학생의 야간 자율학습 후 안전 귀가 지원 방안은?

A2 교통여건 때문에 우수 강사를 유치하지 못하는 시골학교에 우수한 농어촌 맞춤형 순회강사를 선발하여 열악한 농어촌학교에 배치함으로써 방과 후 교육 질을 높이고, 국 어·영어·수학 교과를 특기적성과 함께 전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힘쓰며, 방과 후에 추가적으로 교과를 지도하는 교사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많은 교사가 방 과후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질 높은 방과 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야간 자율학습 후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향후 학교의 수요를 파악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도록 농어촌학교를 지원하겠음.

Q1 지방의료원 및 노인전문병원 경영상황 개선 방안 강구 계획은?

A1 지방의료원에 대해 노후 된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현대화를 추진하고 주민 이용편의와 만족도를 높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여 의업수지를 개선하는데 중점적 으로 추진하여 왔음. 도내 공공노인전문병원은 총 6개소로 시·군에서 설립한(천안·보 령·논산·서천) 4개 병원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도에서 설립한 서산·홍성 노인전문병원은 각 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의료의 질과 앞으 로, 의료의 질과 의료이용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간호인력 적정수준 대체, 병실 당 병상 확대,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한 간병인 운영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의료원과 협의하여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방과 후 학교 교과 중심으로 재설정 필요성 제기



정광섭 의원(태안2)

지방의료원 경영 적자 운영 개선 방안 요구



김종필 의원(서산2)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 투입 미흡 지적



조이환 의원(서천2)

농협에 대한 도비 지원 증액 및 시설 사업 확대 촉구



전낙운 의원(논산2)

Q1 충청남도의 전국 자살률 최상위권 불명예 해결 대책은?

A1 자살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시군에 배정되고 있으며, 자살 예방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고, 3농혁신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협력하여 융복합적으로 자살 예방대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2012년 2월 「충청남도 자살예방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운영되고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자살 예방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음.

Q1 보통교부세 재원 확보 노력 및 보정수요의 세원에 맞는 민군상생사업 시행은?

A1 보통교부세 측정 항목별로 지방재정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 해 나가는 한편, 재정(세원)확보 기여도 평가하여 우수 직원에게 재정 인센티브와 인사 가점 부여 등 동기유발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군사시설 설치 시군의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정 수요에 반영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일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과 협의를 통하여 국방대 진입도로 개설 등 「민군상생 사업」으로 활용하여 도와 시·군, 민과 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Q2 3농 혁신의 동반자인 농협에 대한 지원 사업은?

A2 올해부터 농협이 농업과 농촌지역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3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통합마케팅 지원조례'를 제정, 공선출하조직, 통합·연합 마케팅 조직을 농협과 함께 육성하고 있음.

Q3 논산 탐정지 준설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A3 2009년 한국농어촌공사의 감사원 감사시 준설 대상지조사 보고서상 탐정지는 해당 없는 저수지로 분류되었고, 탐정지에는 멸종위기종 조개류과인 귀이빨대칭이가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대가 예상되나, 도는 논산시의 탐정지 수변경관 개선을 위한 수변관광 개발 사업과 연계하고 저수지 기능회복을 위해 준설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설계 등 준설공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할 계획임.

제27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4. 9. 30)

Q1 학교간 교육격차와 우수학생 수월성 교육 대책은?

A1 천안지역 고등학교 간에는 큰 차이의 교육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자존감 저하는 물론 교수·학습 및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천안 고교평준화는 학교간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교육정책임.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성적 우수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Q2 학생·학부모의 비선호 학교 대책은?

A2 천안 동부지역 고입 안정화 추진을 위해 학·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추진하고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Q3 통학거리 개선 대책은?

A3 기숙사가 있는 경우 원거리 통학생 우선 입사 조치하고 천안시, 천안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하여 등하교 우회노선 조정, 맞춤형버스 운영 요청과 원거리 학교에는 통학버스 임차비 또는 학교버스 지원 계획임.

Q4 일반고의 질 향상과 상위권 학생 이동 대책과 특성화고 문제점은?

A4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추진과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 확대 및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확대 계획임.

Q5 천안·아산지역의 고교 입학 학생 대책은?

A5 천안·아산지역 교차 지원 학생수 변화와, 졸업예정자수 변화를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할 것임.

Q6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A6 법령의 취지로 보아 당사자 우선 원칙에 따라 학생, 학부모가 다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령의 취지 및 타시도 사례로 보아 천안의 여론조사는 매우 합리적이며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Q7 천안 고입제도 변경 추진단 운영에 대하여?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와 인사문제 지적



서형달 의원(서천1)

도내 학교상담사 자격 기준 명확성 필요



김 연 의원(비례)

A7 추진단 운영 목적은 고교평준화 도입 체계적 준비로 기간은 2014. 4월~2016. 2월 (1년 10개월간)까지 교육정책국장을 단장으로 4개팀(16명) 구성 운영하며 추진 내용으로 조례 개정, 학교군 설정 고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제정, 학교 배정 방안 연구 및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홍보, 천안·아산지역 고입 안정화 추진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

Q8 사립학교 인사문제로 도교육청 9.1자 장학관 임명에 대하여?

A8 사립학교 신규교직원 채용시 이사장 친인척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특혜 차단, 교직원 신규채용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장학관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임명할 수 있으며, 비서실장은 시·도교육청의 행정조직, 인적자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임명 가능함.

Q1 끊이지 않는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은?

A1 정부, 도·시군의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지속 발생으로 허위등록 여부 집중 점검 치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 대 도민 홍보 강화, 운영자의 직업 윤리의식 교육강화와 부정수급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를 강화토록 시군 협조 요청하였음.

Q2 도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도내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은?

A2 2014년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며 학교 생활 부적응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생활 적응을 도와주며 6개 센터를 운영하고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는 맞춤형 학습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립을 원하는 청소년에게는 취업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Q3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의 증가와 학교상담사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은?

A3 2014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충남 대상학생 122,912명 중 7,784명으로 6%로 해당됨. 학교상담사 자격요건에 맞는 인력이 부족하여 학교상담사를 증원하여 도 배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정규직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교원 상담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공감과 소통, 협력의 분위기로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음.

제2서해안고속도로 문화재 훼손 우려 노선변경 촉구



김용필 의원(예산1)

Q1 제2서해안 내륙고속도로 건설관련 문화재 훼손 예방대책과 인터체인지유치계획은?

A1 고속도로 노선 결정과 나들목(IC) 위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제반 사항을 고려한 결정이 바람직하며 지역주민과의 면밀한 사전 검토와 통합된 주민의견 결집이 요구됨. 도에서는 노선과 나들목(IC) 위치 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이익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지속 노력할 것이며 문화재 환경 보전과 우리 도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노선과 나들목이 위치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

Q2 내포문화권 개발을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은?

A2 서산 대산항과 중국 룡연항간 국제여객선 취항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 천수만 등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고 관광종사자를 대상으로는 환대서비스 개선 교육, 안내표지판 정비 등으로 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3 내포신도시 도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조속한 입주 추진계획 및 예산·홍성 구도심 공동화 억제 대책은?

A3 조기정착 위해 도시기반은 계획보다 20%정도 앞당겨 조성하여 각종 시설의 입지에 충분한 환경 조성과 1만여 세대의 수용 가능한 주택공급과 각종 편의시설 입지로 초기 입주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 노력을 하였고 미이전 기관 61개소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예산·홍성의 구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홍성군·예산군을 지역행복생활권의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노력중으로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상호 기능 연계와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와 주변 도심 간의 역사·문화 및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한 발전방안 등을 발굴·추진해 나가고자 함.

Q4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데 도민의 수질건강 대책은?

A4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해 2020년까지 상수도 보급률 98.1%, 하수도 보급률은 77.5%를 목표로 설정하여 3개분야 8개 사업에 총 3조 2,216억원을 투자, 도민의 수질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음.

Q5 3농혁신 결실을 위한 농업관련 국제행사 유치필요?

A5 그동안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로 행·재정적 부담을 덜기위해 국제행사 개최를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적극적 대응 촉구



강용일 의원(부여2)

지향해 왔음. 그러나,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충남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과 관련한 행사 유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되며 앞으로, 농민소득과 연계하고 우리지역 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Q6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 및 수학여행시 안전지도 활동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대책은?

A6 100명이하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실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교육 의무화, 경찰 협조요청으로 인증된 시설과 프로그램 이용을 내용으로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안내하였으나 안전요원 확보의 어려움과 소규모 여행실시로 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이 있음. 교사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위탁 안전교육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1 3농혁신 성공을 위한 강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A1 농정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잦은 인사이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다수 인원이 상반기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이 있었음. 앞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적극 협조 하겠으며, 3농혁신 정책이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Q2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 피해 대책은?

A2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식량수급에 대비하고자 늦심기, 고온·해풍적응 품종과 피해 경감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신 소득 작목 시범사업과 기상재해 사전대응을 위한 농작물 예찰포·관찰포 운영(247개소)과 함께 농업기상 관측장비(A)운영을 통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015년 상반기 내포지역에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를 개소하여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음.

Q3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개선 방안은?

A3 대원의 개인안전장비를 노후도와 부족분의 전선화를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여 부족한 장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구내식당 운영 급식종사자가 없는 곳은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직원들 정신건강을 위해 공주국립병원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보건센터'를 설치하였고 금년 말까지 219명 직원에게 '국내 힐링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임.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길행)는 지난 9월 25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2014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충청남도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보류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조례안 심사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백낙구)는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김동욱 부위원장(천안2)은 결산서를 보면 주로 행사보상비, 사무관리비 등의 불용액 처리가 많다. 실질적으로 지출원인행위 발생 일자를 보면 추경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용호 위원(당진1)은 재정도 열악한 과정에서 과다 계상된 예산 또는 소요판단이 부실한 예산

을 최대한 줄여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여 예산이 집행되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 결산 심사에서 유병국 위원(천안3)은 시설보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에 3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9,000만원 집행하고 2억원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당부했고, 이기철 위원(아산1)은 농촌지역 도민들의 의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학에서 인력 양성하여 의무적으로 농촌보건지소에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





에서 2012년도 제정된 남북교류관련 조례에 남북교류정책사업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와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사업에 대한 질의와 마을방송 지원 관련하여 형평성 있게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지원을 당부했으며, **조길행 위원(공주2)**은 매년 반복되는 상당량의 미수납액에 대한 방안 및 대책과 불용처리된 부분도 당초 예산에 조그만 신경을 쓰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불용액처리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고, **조치연 위원(계룡)**은 충남도립사격장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해서 군이

소수의 인원 혜택을 줘야 하는지 검토 당부했다.

충청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청양)과 어업지도선(295호) 건조 등이 무산됐고 충청남도가도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가 타당성 검토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백낙구 위원장(보령2)은 지도선과 복지관 건립 등 도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당성 검토 등이 미흡해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도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수정 가결

일회성 그친 축제 아닌 다시 찾고 싶은 축제 주문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는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제60회 백제문화제 현장 방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0월 1일 제60회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공주시와 부여군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제60회를 맞은 백제문화제를 계기로 백제의 문화콘텐츠 재정립과 세계화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일회성에 그치는 축제가 아닌 다시 찾고 싶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김종필

위원(서산2)은 최근 세월호에 이어 홍도 여객선 좌초 등 각종 안전 불감증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인파가 붐비는 축제 현장이야말로 안전이 최우선 보장돼야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당부했고, 유찬중 부위원장(부여1)은 국가 시책과 연계해 침체한 부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해 백제 역사를 널리 전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우 위원(공주1)은 백제의 고도 공주지역에 해외자매결연을 강화해 동북아 교류의 활성화 견인이 뒷받침돼



야 한다며 전통사찰 보수 등 문화재 보호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이공휘 위원(천안8)**은 다양한 체험거리 강화뿐만 아니라 축제기간 중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해 도민 소득 증대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역 상품과 연계한 소비 촉진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연원 위원(비례)**은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전용과 관련 당초 예산 편성을 소홀히 하므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고, **정정희 위원(비례)**은 예산전용과 관련, 사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7건 3억5천264만원 예산전용을 한 것은 잘 못된 예산 집행이라며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뒤 찾아가는 문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하여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도가 추진하는 각종 조례와 규칙, 주요 정책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의회와 협의하는 등 관련 규정

을 마련했다. 향후 도지사는 매년 1차례 이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과 정책 개선 내용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원태 위원(비례)**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단순히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충청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해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역사 속으로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산림환경연구소 시설 점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홍열)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규약안,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심사에서 김용필 위원(예산1)은 농업인을 위한 교육분야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소득증대에 전진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낙운 위원(논산2)**은 세입징수결정액이 수납액과 정확하게 맞는데 사전에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 하였는지와 태안백합시험장 감리비와 시설비를 변경했는데 예산 회계법상 전환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고, **김명선 위원(당진2)**은 정확한 자료제출은 가장 기본임에도 도가 이를 망각한 것 같으며 이러한 실수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고, **김문규 위원(천안5)**은 부실하게 제출한 자료는 도 의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나아가 도 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홍재표 위원(비례)은 농정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건전한 재정운용과 성실하게 농업발전, 농민과 농촌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축산과는 앞으로 더 경주하여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경제통상실 소관 심사에서 **김복남 위원(금산2)**은 국비 확보와 충실한 집행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서 경제통상실이 제대로 돌아가 충남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항규약

폐지 규약(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강용일 부위원장(부여2)**은 문제는 앞으로며 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실망감과 재산권이 묶인 데 따른 피해가 크므로 향후 해제된 지역의 발전 계획과 대책 마련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공주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풀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을 초청,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가 집행부 공무원을 직접 초청,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도의회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처럼 도의회가 앞장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집행부 작은 목소리가 곧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덕분이다.

김홍열 위원장(청양)은 의원과 집행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작은 현안에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허심탄회한 속 깊은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에 도의회와 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동연찬회에 앞서 위원회는 산림환경연구소를 찾아 현황과 업무추진 상황을 듣고, 금강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 등 시설점검을 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월사업 예산관리 후적정 집중 점검

외연도항, 장고도항, 녹도항 개발 현장방문



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이종화)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부서 2013회 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과 외연도항, 장고도항, 녹도항 개발 현장 방문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조이환 위원(서천2)**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상당히 높는데 징수결정을 했으면 예산확보에 차질없이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 수납을 위한 노력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요구했고, **오인철 위원(천안6)**은 폐도부지 활용 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설계비 지출만 하고, 나머지 이월시

키고 잔액처리를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필요한 사업인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으며, **신재원 위원(보령1)**은 수납액에 있어서 과오납환급금이 발생한 것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가 없이 세심한 업무력을 당부했고,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사업을 이월시키는 것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환 위원(천안7)은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공사를 마무리 지어 도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민생활편익시설을 위한 기업유치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정광섭 위원(태안2)**은 사업을 진행

하다 보면 못하는 부분은 그 다음연도 이월을 이해를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증액시켜 사업비가 남아 불용처리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도내 도서지역 장고도항, 녹도항, 외연도항 등 3개 도서지역을 찾아 어항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에 나섰다. 세월호 침몰 사고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 불감증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의회가 앞장서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응규 부위원장(아산2)**은 장고도항 방파제, 물양장, 선양장, 지방개량준설 매립사업 현장

과 녹도항 부잔교, 안전 난간 설치 공사 현장을 살펴보니 항상 태풍과 해일을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유람선과 소형 선박의 접안을 용이하게 해 관광객의 편의와 어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며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위원들은 소방사각지대로 화재발생 시 초기 소방력 투입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 분말 소화기 20대를 기증하기도 했다.

내년도 국비 요청 위해 국회 방문

홍문표 예결위원장 등 만나 내포신도시 도로 개설 등 25개 주요 현안 건의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4일 국회를 찾았다. 이날 국회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흠 의원(보령·서천), 이명수 의원(아산) 등을 만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의정 활동을 했다. 의원들이 이날 국회에 건의한 내용은 내년도 주요현안사업 25개(5,249억원)로 압축된다.

의원들은 홍성역부터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

을 비롯해 내포신도시 정부기관 합동청사 건립,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을 건의했다. 또 서해선 및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덕산~국도 화·포장, 보령~부여 간 국도 화·포장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홍문표 예결 위원장은 이번 국비 요청 사안이 환황해권 시대의 교통인프라 구축 등 충남의 미래에 직결된다고 정부예산 확보에는 여야가 없다.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앞으로 충남 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방문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방문할 계획이며 출향 인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주요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충청남도교육청 핵심사업 예산대폭 삭감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한 식재료 사용 관한 조례 통과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현**)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과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충남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송덕빈 위원(논산1)**은 교육청은 조세권이 없기 때문에 교육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여 어려움 속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결산서의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기관마다 2~3배로 차이가 많다. 이에 대한 노력 및 향후 대책이 필요하

다고 지적했고, **맹정호 부위원장(서산1)**은 직속기관 전체 불용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이중 66.5%인 12억원이 교육연구정보원의 불용액이다.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 불용액이 어떤 사업에 대한 불용액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김종문 위원(천안4)**은 다른 시도교육청은 사업에 중요성을 인식, 본예산에 정보화 지원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으로 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을 배제, 9개월간 사업이 멈췄다고 지적하며 돈만 내주는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 해마다 되풀이해서 결산검사를 하

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지만 지적사항에 변화되는 건 크게 없는 것 같다. 결산검사를 그냥 통과의례로 생각하지 말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또 다시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적했고, **서형달 위원(서천1)**은 학교 회계직원 직종별 처우개선 수당 지급 현황 자료와 학교별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이 있지만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조리사만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급식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를 요구했으며, **김석곤 위원(금산1)**은 학교 교명 변경이 자주 있는데 교명을 지을 때는 신중하게 학교 동문회나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세심하게 생각하여 또 다시 교명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장기승 위원(아산3)**은 340여 명의 아산 학생이 예산, 당진지역의 학교로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최소한 학생들이 지역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줘야 하므로 교육당국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으며, **홍성현 위원장(천안1)**은 위원회에서 어렵게 토론한 결과 찬성5, 반대1, 기권2의 압도적인 숫자로 통과된 만큼 천안의 고교평준화를 갈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특별위원회

서해안살리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첫삽, 업무보고회 가져



서해안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이환)는 지난 9월 25일 회의를 개최하고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단순한 피해보상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복원에 초점을 둔 활동으로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위원회는 해양수산국장의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보상 업무 지원, 유류유출피해지역경제활성화사업, 유류피해 극복기념관건립, 해양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조이환 위원장(서천2)은 태안기름유출 사고의 직접적

인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보상을 넘어 박탈감 해소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으며,

정광섭 부위원장(태안2)은 양식어민과 선박어민의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70% 이상 차지하는 맨손 어민의 피해보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해안살리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침체한 서해안유류 사고 후속조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충남도교육청 결산 심사 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지난 10월 8일과 10일 이틀간 충청남도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의결 했다.

충청남도 소관 결산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과오납반환금 과다 발생 사유와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과다 계상 등 질타가 쏟아졌다. 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불용사유, 이월 사업비, 예비비 사용 등 의원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 지난 결산심사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도 분석했다.

홍재표 위원(비례)은 충남도의 재정 운용 상태를 보면 국비 의존도가 47.9%(2조 271억원)에 달한다며 이 중 105

억 1천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장기승 위원장(아산3)**은 이번 결산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결산 심사를 충분히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위원들은 세입징수액 감소, 불납결손액과다, 세계잉여금과다, 미수납금 수납 독려, 불용액 과다 등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김용필 위원(예산1)**과 **정광섭 위원(태안2)**은 급식 환경 개선에 대해 주문했으며, **정정희 위원(비례)**은 교수 학습활동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내포문화권발전지원 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 구성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필)는 내포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 구성에 나선다고 지난 10월 14일 밝혔다.

앞서 10월 13일 건설교통국, 내포신도시 건설 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이에 따른 현안 해결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위원회는 향후 내포 권역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과 업무 보고를 통해 내포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또 중앙정부와 연계해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오배근 위원(홍성1)은 내포신도시 집단 에너지시설 사업과 관련해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편안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도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내포문화의 핵심의 가야산의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현장을 보존 개발해야 하며 예산군부터 서산시까지 이어지는 산맥을 통한 관광 자원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지속해서 보존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필 위원장(예산1)은 내포문화발전지원 사업이 도 내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 일본 등과 연계한 학술대회를 개최해야 하며 내포 문화유적이 어느 문화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274회 정례회 주요안전처리 현황

총16건 (제정안 2건, 개정안 6건, 동의안 2건, 기타 6건)

제정안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발 의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2012. 3. 16.)되어 우리 도 실정을 고려한 「충청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분석평가 실시로 도정의 성 평등 실현 위함

개정안

충청남도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등 상위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코자 함

제정안

충청남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물은 물론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학교급식 사용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개정안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1998. 9. 5.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충청남도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하고 2014. 3. 25.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심사기능 보강을 위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개정안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규정으로 인한 의무구매 제도 실효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물품구매 입찰 조건 또는 공사발주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에 녹색제품 구매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2015. 3. 1. 신설되는 학교를 삼입하고, 금융회계 분야로 학과를 개편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식품제조분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개편되는 학교의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안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3. 12. 31)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동물의 유기·유실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 동물등록제를 혼선 없이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

개정안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교육감

| 처리결과 | 부결

|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천안시에 대해 여론조사(2013. 11. 8 ~ 12. 6)를 실시한 결과 73.8%의 찬성률로 조례의 찬성률 기준 65%를 상회함에 따라 천안시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결산
승인의
건

1.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2.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4.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동의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 발 의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자본금 출자와 국·공유재산 교환, 아산소방서 신축 및 보령시 청라면 냉풍육장 개발과 두산인프라코어(주) 건설 기계시험장 개발에 따른 도유재산 매각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하려는 것임

기타
(규약안,
동의안)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 폐지 규약안

| 발 의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송악·인주지구)가 2014. 8. 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140호)에 따라 지정 해제됨으로써, 충남도와 경기도간 지방자치단체 조합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짐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및 동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립근거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조합규약」을 양도(충청남도, 경기도) 의회 의결을 통해 폐지함으로써 해산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임

동의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발 의 자 | 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충청남도의회 의 의결을 받아 처리토록 하고 있음

기타
(규약안,
동의안)

쌀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발 의 자 | 김용필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쌀 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강화된 쌀 산업 발전대책이 없는 쌀 관세화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총체적인 쌀 산업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의안 전문은 충청남도의회홈페이지(// . . . 의정활동=>의안)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 살리는 황금시간(골드타임) 확보 도민이 앞장서야



이종화 위원장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홍성2

최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안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사안이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새삼 골드타임에 대한 도민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골드타임은 응급환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료 및 처치시간의 의학용어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황금시간인 셈이다.

이 황금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응급 환자는 천국과 지옥을 왕래한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응급환자로서는 이 시간의 일분이 한 시간, 하루, 한 달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황금시간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이 그렇다.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사회에 골드타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안타깝게 세월호 침몰 사고의 황금시간은 책임성 없는 선장과 지휘·구조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당국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대만 제2도시 가오슝 도심 한복판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 300여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고 역시 첫 가스누출 신고 접수 후 폭발이 시작되기까지는 3시간의 황금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초기대응부실로 이 시간을 놓쳐 인명과 재산 피해만 커지게 됐다. 이처럼 중요한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우리 도민의 의식 변화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본 의원은 1984년부터

1997년까지 13년간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했다.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부친의 사업을 돕기 위해 고향에 터를 꾸린 것이다. 첫 봉사의 출발점이 의용소방대였다. 전통시장과 주택밀집지역, 대형화재 취약 대상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해 예방순찰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아직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시장 골목과 주택·상가밀집지역은 어김없이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과 짐을 실은 화물 등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본 의원은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도내 각 지역의 곳곳을 직접 현장 방문 확인하고 있다. 아쉽게도 예전과 오늘날 변한 것은 크게 없다는 점은 참으로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전히 전통시장을 비롯한 도시의 골목길·도로는 교통량 증가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진입도로와 주차장은 통행이 불가능 할 정도로 빼곡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형 병원과 쇼핑센터 등 대형건물의 주변을 보면 인명구조 활동과 사고수습을 위한 대처 방안이 전무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금 시간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불법주차로 긴급차량이 접근하지 못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 그 피해가 우리 가족에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해야만 한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도민의 황금시간(골드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도민이 앞장서 사회의식을 바꿔야 한다. 우리 도민의 작은 의식변화의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기 대해 본다.

저출산 · 고령화 극복으로 희망을



정정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비례

최근 저출산 · 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노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며 경제 발전의 잠재력이 고갈되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53조원 가량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현실이다. 불행하게도 막대한 자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산율은 2006년 1.12명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사회구조적으로 저출산 · 고령화를 대비한 준비에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졸 남자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는 33세가 넘는다. 늦은 나이에 직장을 잡다보니 결혼도 늦고, 출산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직장과 일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고학력 시대에 그동안 배운 기술과 학업을 여성이 발휘할 기회를 위해서는 여성의 가사 부담이 줄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산후 조리원, 보육시설,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 공공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심도 있는 지원, 경력 단절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 여성의 고위직으로의 공직참여 확대, 여성 안전 등 여성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여성이 직장을 갖고 맞벌

이 부부가 증가하는 만큼, 남성도 이제는 육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성의 육아휴직 시에 불공평한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다.

동시에 고령화를 대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고령화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노인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일자리 제공이 핵심이다. 도내 운영되는 시니어 클럽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에게 일한만큼 대가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노인들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자리 창출은 좋은 사례다. 만일 어린아이 돌봄이 노인 일자리로 창출되면 양육하는 부모는 근로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것이다.

거듭 강조한다. 저출산 · 고령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회제도적 여건마련이 저출산 ·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산후 조리 시 대폭적인 지원을 비롯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기회 평등,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 등을 꿈꿔보자. 또 노인이 공동체 내에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상상하고 건설해 보자.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저출산 ·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을 염원해 본다.



포토의정



01 9월 23일 김기영 의장은 2014 충남 여성농업인 농산물 홍보한마당에 참석하였다

02 9월 17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전원은 의원연찬회에서 결의문 채택하였다



- 03 9월 20일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은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에 참여하였다
- 04 9월 24일 김종필 의원(서산2)은 지난해 경영수입 적자를 본 도내 의료원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 05 9월 24일 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이종화) 소속 위원은 국회 방문하여 홍문표예결위원장을 접견하였다



01 9월 25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는 제274회 정례회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02 9월 26일 김기영 의장은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03 10월 13일 김기영 의장은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에 참석하였다

04 10월 2일 김기영 의장은 덕산온천관광지에서 개최한 2014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05 10월 6일 7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홍열) 위원과 소관 실·국·원은 합동연찬회를 가졌다





04 共和国吉林省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与大韩民国忠清南道议会友好交流协议书签字仪式
충청남도의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간 우호교류합의서 조인식
2014. 10. 14



- 01 10월 7일 김기영 의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은 도내 문화재기능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 02 10월 10일 김기영 의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장은 국가유공자 합동이장 영헌봉송식에 참석 헌화와 분향하였다
- 03 10월 13일 김기영 의장은 충남 사회단체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였다
- 04 10월 14일 충남도의회(의장 김기영)와 중국길림성상무위 간 우호교류합의서 체결하였다

발로 뛰는 의정 결의문 채택

— 향후 4년간 대변자 역할 자임...여야 의원 간 협력키로 —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는 지난 9월 17일 안면도 오션 캐슬에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의원 전원이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4년간 도민의 대변자로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도민의 목소리가 곧 충남 발전에 촉매제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귀담아 도정에 접목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안전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도민의 편에 서서 봉사자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또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숭수범하는 동시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각종 현안과 갈등을 해결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원구성 문제로 불거진 '갈등의 불씨'

를 '화합의 불씨'로 전환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여야 의원 간 결속을 통해 향후 4년간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의원들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의정 연찬회를 통해 9월 2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준비도 철저히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지낸 신해룡 박사를 초빙해 도 재정 파악과 예산 심의 기법을 배웠다. 이주희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로부터 정책 조례 만들기 사례와 기법에 대해 강의를 듣기도 했다.

김기영 의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마련한 만큼 오로지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몰된 황해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유치 고민」 의정토론회 개최

－ 아산지역 첨단산업 연계한 국가산업단지 유치 방안 모색 －



충청남도의회가 주최하는 의정토론회가 지난 9월 17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지역민,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지역 첨단산업 관련 국가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몰제로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동시에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황해자유구역은 2007년 중국 무역과 황해경제 전진기지 육성을 목표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자를 찾지 못했고, 지난 8월 일몰제가 적용돼 아무런 성과 없이 사업이 종료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철 의원(아산1)은 “돌아보면 이 사업은 확고한 목표와 뚜렷한 의지 없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었다”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는 바람에 경쟁력도 낮아지는 케이스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등 전국으로 경제자유구역 열풍이 불었지만, 충남만 성공하지 못 했다”며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산 인주지구 주변에는 현대자동차아산공장 등이 들어선 만큼 자동차 부품 생산 클러스터와 & 센터 등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백운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부장은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인주지역을 포함한 아산만권의 종합적 마스터플랜 수립과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계획 분석 등 공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순복 인주지역발전협의의 회장은 “인주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데다, 당진·평택항 등 지리적 우월성이 있다”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지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시·도지사 의견수렴, 합동설명회, 중앙기관장과 협의, 계획심의 등 지정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다양한 창구와 활로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제기할 것”이라며 “주변 산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동시에 입주 수요 예측을 통해 검증 절차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		
구 분	성 명	소 속
좌 장	정진경	아산총무회 사무국장
발제자	이기철	충청남도의회 의원
토론자	이필영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백운성	충남발전연구원 연구부장
	임창빈	아산시 경제환경국장
	김일환	순천향대학교 교수
	홍순복	인주면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사 회	문경주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청소년의회 교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배워요’

조례 제정 과정 생생 체험학습



충청남도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소년 의회 교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고 조례 제정 등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는 덕분이다.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는 10월 14일 아산 송남초등학교 학생과 지도 교사 33명을 초청하여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었다.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은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 역할을 직

접 수행하는 동시에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가장 호응을 얻은 활동은 의장 선출과 조례 제정과 학생들은 실제 의장을 뽑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 민주주의 선거방식과 주민 대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학생 직업체험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조례 2건을 의결했다. 또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건의안, 학교 운동 쓰레기통 설치 건의안 등 건의안 2건을 처리했다.

학생들은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층적인 찬반 토론과 표결을 거쳐 의정 활동을 경험했다. 2분 자유발언을 통해 향후 발전 계획을 발표하는가 하면, 학교와 학생들 간 갈등 또는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냈다.

장기승 의원(아산3)은 청소년의회 교실은 학생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체험을 통해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